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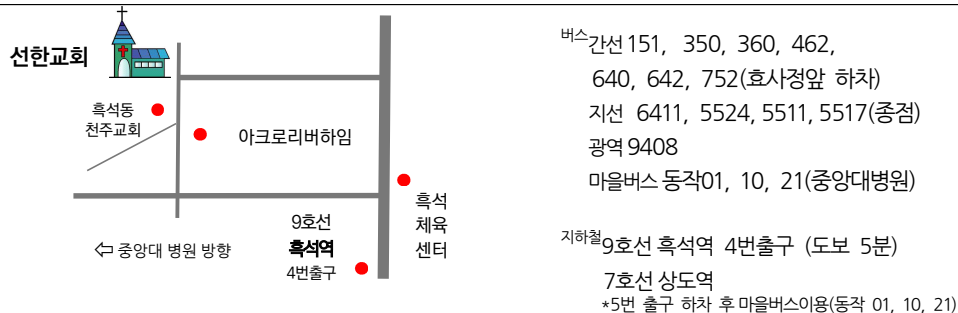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37 (시편 91편)
찬	양 과 경 배	521장 (통일찬송가 253장)
대	표 기 도	유신웅 장로
말	씀 봉 독	마태복음 7장 13~14절
설	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잠6:20-35)

1. 예배 안내

10월 11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일기도회는 영상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신8장~수15장]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이오타’에게서 배운다

찬송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통 347)

본문 : 마태복음 5장 18~19절

말씀 :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단언하십니다.(18절) 여기서 ‘일점 일획’을 눈여겨봅시다.

본래 ‘점’과 ‘획’은 서예에서 쓰는 말입니다. 붓글씨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점 찍는 것과 획 긋는 것을 연습합니다. 점과 획이 모여서 글자를 이루고, 글자들이 어우러져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일점과 일획이 붓글씨에서 가장 작은 요소인 것처럼 율법의 ‘일점 일획’은 율법 조항에서 가장 하찮고 사소한 것을 가리킵니다.

‘일점’은 헬라어로 ‘이오타’입니다. 헬라어 자모 ‘이오타’는 헬라어 24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작은 낚싯바늘같이 생겼습니다. 이오타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오타를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율법의 이오타를 뛰어넘어 ‘사람의 이오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오타 하기(下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는 아래에 쓴다는 뜻이지요. 이오타가 다른 장모음과 나란히 있을 때는 이오타가 더 작아져서 장모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글자가 절반 정도로 작아져서 다른 글자 밑에 들어갑니다. 양보의 미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오타는 발음을 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의 미덕을 겸했습니다.

이렇게 이오타는 큰 글자와 마주치면 자리다툼이나 대결을 벌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더 낮추어서 기꺼이 큰 글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이오타가 더욱 작아져서 아예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 분명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 먼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오타입니다.

이오타에게서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고, 아래로 내려가는 법을 배우고,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글자 이오타에게서 배울 바가 많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눅 9:48)

은혜의 말씀

제목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7:13-14)	
서론	기독교인들은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론	1. 선택: 넓은 문 vs 좁은 문 (1) 예수님이 제시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13절) (2) 좁은 문은 ①좁고 길이 협착함 ②찾는 자가 적음 ③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14절) (3) 중간 지대는 없다! 종착지를 생각하라! (벧전1:4) 2. 교훈 (1)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나는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였는가? (3)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결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장로

매일 Q.T.		백성들의 불순종과 재앙	날짜 : 10월 5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본문	예레미야 42:13~22		
	예레미야에게 나아온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식물의 꺾절함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에 남아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형벌, 악인이 받게 되는 보응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응답받는 내용대로 행하리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스스로 속인 것을 들추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장의 결론으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의 불성실과 불경건과 배은망덕함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종말을 맞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의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성경적 묘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끊임없이 반복하는 악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묵과하지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묵상질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적이 언제였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언젠가 존 비비어 목사에게 사역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 상황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와 그 아내에게 각각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의 집요한 제의에 우쭐해졌고 거기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당히 얼버무리기 시작했고, 마음이 온갖 말들로 혼탁해졌습니다. 아내가 계속 그를 말렸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국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감기에도 좀처럼 걸리지 않았고, 걸린다 해도 하루 이틀이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일을 추진한 날부터 갑자기 앓기 시작했고, 좀처럼 이겨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온갖 병을 앓는 동안 아내는 단 하루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는 그보다 강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의적 불순종으로 저주를 자초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선택을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때 맞이한 결과는 어떠했고, 그 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43:1~13	
묵상포인트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애굽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은신처로 믿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갑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이끈 애굽은 곧 멸망할 나라였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신뢰할 때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아사랴와 요하난 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1~7절)	
적용하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경향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함께 기도하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갈 길을 잃고 방향할 때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주장을 내려놓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애굽 패망에 대한 표징	날짜 : 10월 9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예레미야 44:20~30		
	예레미야는 선조들의 악행을 답습하려는 애굽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을 일삼는 악하고 가증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부지런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죄악의 도성에서 악을 즐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악한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참으려 하셨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과 아내들이 입으로 서원하기를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고 했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 여신은 바알의 아내 되는 아스다롯에 대한 숭배를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이 서원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상을 계속 숭배하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서원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는 바른 서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서원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당신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의 미련함을 들추어내고 바로를 믿는 것이 헛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벌할 표징은 애굽 왕 바로 호브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20년 후에 성취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바 되듯이 호르바도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 백성들	날짜 : 10월 6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 가며		
본문	예레미야 43:1~13		
	예레미야는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의 말씀을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달한 말씀은 곧 요하난과 그가 이끄는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지 말 것과 가지 않으면 평안하게 살고 가면 저주와 수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직접 들은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자기들의 생각을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임을, 이후에 취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그 응답의 내용이 그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계획과 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지된 바와 같이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물을 바로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선택한 것으로 여길 때 오류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옳고 선하며 바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나는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날짜 : 10월 7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44:1~10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거한 지역은 므딤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므로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고 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흠으로 지음을 받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창2:7). 그래서 인간은 흠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산출시켜 주는 좋은 흠이 없으면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외식과 불법의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킬까 하여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자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드러내어 놓고 애굽의 우상인 태양과 곤충과 하늘 여신 곧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랏을 섬겼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름으로 거듭 매를 맞는 어리석은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도 멸망하기 이전의 죄악 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애굽의 죄악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묵상질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가 언제였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재앙 예언과 백성들의 반응	날짜 : 10월 8일
찬양	찬송가 483장 구름같은 이 세상		
본문	예레미야 44:11~19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여 아직까지 살아 남아서 애굽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온 남은 자들을 징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피한 백성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는 애굽을 정복하고 거기 남아 있는 유다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바벨론의 무력을 두려워하여 안전한 애굽에 우거하리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이 결코 안전 지대는 아닙니다. 안전 지대는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이 살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유배되어 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여 유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둘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향해 '도피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강퍅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 거부하고 열조가 섬기던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들은 항변하는 원인으로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풍요와 번영과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의 불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재앙이 없었고 식물이 풍부했지만, 우상 숭배를 폐한 이후에는 핍절하고 갈과 기근에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며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 주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